

# 책읽기는 좋은 책 찾기부터

주중식

거창 셋별초등학교 교감 · 한국글쓰기연구회 이사

학교문화를 새롭게 바꾸자는 교육부 시책이 담긴 홍보자료에 따르면, 대학입학제도가 바뀌면서 공부하는 방식도 달라진다고 한다. 직접 몸으로 겪으면서 배우는 시간을 늘리고 또 교과서 밖의 여러 책을 읽어 아는 것을 넓히도록 하며, 이렇게 배우고 익힌 것을 함께 토론하는 사이에 오히려 실력을 갖추도록 하란다. 이에 발맞춰 지역 교육청에서도 책읽기 교육이 잘 이뤄지도록 돈도 많이 들인다니, 아무튼 반가운 일이다.

이전에도 학교에서 책읽기 지도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한때는 고전읽기 운동이라 해서 똑같은 책을 읽게 해 '경시대화'라는 행사까지 한 적이 있었고 또 어떤 때는 반공도서 읽기를 반강제로 한 적도 있었으며, 《어깨동무》 같은 특정 재단이 내는 잡지를 학교마다 학급 수대로 사 보게 했던 때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읽어야 할 좋은 책이나 잡지는 어느 것 하나 발붙일 자리가 없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아이들 가정을 방문해 보면 '지능개발'이니 어쩌니 하는 전집류가 많고 날권으로 있는 것도 '××는 못 말려' 같은 짓궂은 장난 이야기 만화책이다. 게다가 원작을 맘대로 꾸며 다시 쓴 외국동화 그림책까지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 책들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책들은 모양만 책일 뿐 아이들 마음을 병들게 하는 독이나 마찬가지로이다.

이렇게 된 데는 먼저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 어릴 때 자주 먹어본 음식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좋아한다. 그러므로 현명한 부모는 아이가 해로운 음식에 맞들이지 않도록 우리 몸에 맞는 밥·국·김치 같은 우리 음식을 먹여서 키운다. 먹어야 할 것과 먹이지 말아야 할 것을 가려서 먹이는 법이다. 아기는 해로운 줄도 모르고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 것이나 집어먹고, 알록달록하고 단 것이 더 좋은 줄 알기 때문이다.

책도 마찬가지다. 아직 글자를 몰라 부모가 읽어줘 맛을 느껴야 하는 시기는 말할 것도 없고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때라도 초등학생한테는 좋은 책을 가려서 찾아줘야 한다. 그러지 않고 책방에 가서 고르라면 어떤 걸 고를까? 텔레비전 만화나 우스개꾼이 하는 말투를 따서 이름 붙인 울긋불긋한 책을 고를 게 뻔하다.

어린이 책을 펴내는 출판사도 반성해야 한다. 아무리 먹고사는 일이라지만, 다른 물건 만들어 팔아서 돈을 벌 일이지, 아이들 잡는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가. 안 사면 안 만들 것 아닌가 할지 모르나, 그건 어른을 상대로 하는 책을 두고 할 말이다.

그러면 우리 교사들은 책임이 없을까? 아니다. 좋은 책을 찾아내 아이들과 부모님들한테 알려줘야 한다. 겉모양이나 이름만 보아서 좋은 책을 가려내기 어렵다. 교사는 부지런히 읽어야 좋은 책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제대로 된 책읽기 지도는 무조건 많이 읽으라고 하기보다 좋은 책을 찾아주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모처럼 좋은 뜻으로 아이들한테 책읽기를 지도하게 된 마당이다. 학부모·교사·출판사들이 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골라준다면 알찬 열매를 거둘 수 있으리라 믿는다. ♦

초점	2	일반 교양서도 표절 심각하다 출판계 저작권 인식의 현주소 드러내
특집	4	우리나라 어린이책의 역사를 빛낸 작가와 책 전문가 28명이 뽑은 5대 아동작가와 책
	5	만화 - 박시백
	6	우리말 자유와 함께 자라온 어린이책 - 이재철 대한제국기부터 해방 공간까지
	7	어린이 옛책 모으는 지경사 김병준 사장
	8	지금 다시 읽고 싶은 어린이 책 유경환/성석제/원종찬/조월례
	10	독창적 세계 일군 그림책 작가들 이태수/정승각/권윤덕/조선경/정순희
	12	어린이책 시장에 뛰어든 '성인' 출판사
	13	안심할 수 없는 초등학교 권장도서 -곽정란
	14	소파 방정환의 삶과 작품 - 조대현
화제의 출간	16	《겨레아동문학선집》(전10권) - 채인선
출판화제	22	'노년공포증'에서 벗어나야 할 출판
	23	생물세계의 숨겨진 비밀
	24	사이버 공간에서 길찾기
출판가	25	제목을 읽으면 책의 운명이 보인다?
특별기획	26	다원화한 세계에 방향타 고정시켜 줄 등대 - 조한욱 Ⓜ 역사·인류학편
책갈피 산책	27	박대현 편저 《우리책의 장정과 장정가들》을 읽고 - 정병규
서평	28	철학연구회 편 《정보사회의 철학적 진단》 - 공용현
		이정우 《인간의 얼굴》 - 이지훈
	29	한정희 《한국과 중국의 회화》 - 최병식
	30	신일철 《평양의 봄은 오는가》 - 박명서
		강수돌 《작은 풍요》 - 정성기
	31	최인진 《한국 사진사》 - 육명심
이책그사람	32	《오늘을 보는 철학자의 눈》 펴낸 이영호 교수 《유럽만화를 보러 갔다》 펴낸 이동훈씨
	33	《마침내 하나됨을 위하여》 펴낸 김종철씨 《정보화 시대의 학교도서관 만들기》 펴낸 송문고 학생들
	34	새책 속으로 / 38 새로 나온 책
	48	독서퍼즐